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쳐시다

토론문화 부실

불교계 토론문화는 정착되고 있는가? 토론은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창구다. 불교가 새로운 세기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끼워야 할 첫 단추로 '성숙한 토론문화'를 짚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열었던 공회회, 포럼, 세미나는 모두 20여차례. 불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대중공사가 매일 한 두번씩 마련될 만큼 불교계 토론문화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행·발표 등 내용상에서는 여전히 부실하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노출되고 있고 말그대로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6월 열린 제1회 불교사회복지지도자 워크숍은 주최측의 노력과 취지에는 아랑곳

없이 발표자의 무성악한 발표태도, 토론자의 발제에 대한 '알곡세워주기' 식의 칭찬이 난무했다. 5월 열린 불교학의 춘계학술회의에서는 발제만 있었을 뿐 토론은 없었다.

토론문화는 자기 신념 혹은 학문에 대한 확신이나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는 문화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확립해가는 작업이다.

그런데 한 불교계에서는 정점이나 학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담당하게 펼치는 모습을 볼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공회회, 포럼, 세미나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내용상 키우기에 노력해야 한다. 토론 주제도 풍단이나 종교와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몫으로 남아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청년 불자들이 쏠리고 있는 '사이버 토론'을 양성하고 수렴된 의견을 현실에 반영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인터넷 웹진 '연꽃' 11월개설 어린이 사이버포교 나선다

불교어린이지도자련

21세기 사이버포교의 새 장을 여는 최초의 인터넷 불교어린이 웹진 '연꽃'이 빠르면 오는 11월 선보인다.

불교어린이웹진 '연꽃'은 지난 88년부터 교사지도사인 율간(동원)과 어린이법회교재(연꽃) 등을 발간해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스님, 이하 대불어)가 준비중인 차세대 포교사업이다. 이 인터넷 어린이 웹진은 타종교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시도다.

현재 준비중인 인터넷 불교어린이웹진 '연꽃'은 (동원)과 (연꽃)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법회의 운영과 포교를 위한 실행문안, 불교교리, 찬불가,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 불자들이 직접 참여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코너를 중심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화상정보 제공과 다른 지역의 어린이포교단체나 해외포교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불어는 웹진 운영을 위한 전체 계획을 마련해 놓고, 조만간 전체 임원회의를 통해 최종 사업방향을 확정짓을 예정이다. 대불어 최미선 사무국장은 "대불어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이후를 중심으로 종교관련 사이트수를 조사한 결과 불교사이트 수는 전체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개신교의 사이트수는 70%에 육박했다"면서 "인터넷 사이버포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2~3년내에 한층 성숙된 사이버포교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청사신축 동참" 당부
 해암종정 교시발표**

조계종 총정 해암스님은 8월 28일 교시를 발표, 총무원 청사 신축사업에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교시 요지.

가람은 내로는 장(藏)하여 삼보가 상주하고 외로는 방(放)하여 전법도행하니 처치가 가람이요, 일체가 가람아님이 없으니 형제도 없고 경계도 없었다.

다만 공상을 피하여 벽을 두르고 눈비를 피하여 지붕

을 얹었으니 남자의 수행을 증장케 하고, 불도가 신심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다.

육조의 산문을 삼각산에 둔 것은 비전면면한 정종맥(正宗脈)을 계승했었으며, 정화 이래 영예의 오욕이 함께 했으니 이 또한 파할 수 없는 시절인연이다.

다행이 당금에 이르러 고산 총무원장이 조계사를 종단의 중심도량으로 바로잡고 흐트러진 종풍을 수습하여 전각교사 하니 모든 풍도와 사부대중은 수회동참하여 불법을 만고에 빛낸 대가람의 진면목을 현시하라.

"민영교도소 종교자유 보장"

법무부, 조계종에 회신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권 관련, 8월 24일 조계종총무원에 회신을 보내 "종교단체에 의한 교도소 운영 시 특정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할 수 없도록하여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

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민영교도소는 문제점보다는 실익이 크다는 일반적 평가가 있고, 외국의 경우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운영 주체를 선정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운 기자



○9세기말 제작된 금미륵보살좌상. 1974년 9월 금강산 민족통일기념관에서 발견된 국보급 순금불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문화재 1만여점중에는 불교성보가 상당수 있다.

북한 비공개문화재 1만점 '공개'

경향신문 CD롬 제작

금동석가여래좌상(13~14세기), 금미륵보살좌상(9~10세기), 분장자기불상집(15세기) 등 북한의 비공개 문화재 1만여점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에 소개된다.

경향신문사 산하 한민족 문화네트워크 연구소는 지난해 5월 (조선 유적 유물 도감) 중 북한에서 발견된 문화재 관련 도감·도록 30여권에 대한 사

유권을 북한의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체결하고, 1만여점에 달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해 CD롬으로 제작했다.

또 경향신문사는 북한의 조선 컴퓨터센터에서 제작한 CD롬 7000년의 문화재보도 입수했다. 이들 자료는 그동안 '빈록'에 그쳤던 한반도 역사 및 문화의 복원과 민족 통일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국내 외국스님-해외파견 포교사 '지원'

문화부, 예산안 마련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스님과 해외파견 포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등무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지원단체 선정 기준을 곧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합의를 갖고 외국인 스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5여여인의 예산안을 확정, 이달 하순부터 열리는 한 정부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등무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지원단체 선정 기준을 곧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구산신문 참선 기행

10월 : 봉림신문(봉림사지) · 성주사 · 장유암

10월에는 현옥선사(787~868)에 의해 개창된 봉림신문의 중심도량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 봉림사지를 찾아갑니다. 봉림사지에서는 고려 왕실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때 경남 지방의 산골을 진작시켰던 향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년 고찰 성주사에서는 대웅전(지방문화재 제134호)과 3층석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야시대의 장유암이 토굴을 짓고 수도하며 불법을 수로대로 전한 호사가 됐다라는 유서 깊은 장유암도 함께 합니다.

- ◇출발: 10월 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배2일)
-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 ▶구산신문 관련자료 부디피어(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사찰환경수호 결의대회 연다

10월 12일 조계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정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과 교구본사 주지들은 2일 한국외지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돼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보존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다음 달 12일 조계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총무원은 "사찰환경 보존을 위해 전사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미미하기만 하다"며 결의대회 개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총무원은 이번 결의대회에 전국 교구본말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결의대회 전까지 홍보를 극대화하고 종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구본사와 관람료사찰, 주요사

公告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는 본회 회칙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開催함을 공표하오니 同門여러분의 많은 同聲 바랍니다.

- 일시: 1999.9.15(수) 오후4시
- 장소: 동국대학교 정각전 법당
- 안건: 임원선출에 관한 건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會長 許 壽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 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후원처로: 8003478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069-01-238223 신한은행: 189-13-03929-3
 예금주: 불교방송
 ☎121-050 서울 마포구 아포동 140 다보덕빌딩 (전화: 02-765-5660-11)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 판매원: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제조원: 금성 통상
 불사민속품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Tel: 02)735-1522 · Fax: 02)737-0697 · Tel: 051)324-3731 · Fax: 051)324-3733
 * 1~2개 주문시 동기로 구매부담, 3개 이상 구매시 판매처 부담 ·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차, 현대불교신문지
- 응모방법: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공백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 경품내용: 1등: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회) 2등: 2명 (고승기념품 6개/세트) 3등: 3명 (고산디기 및 디기/세트) 4등: 10명 (문구업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집) 5등: 50명 (현상공덕향 1개) 미하몰상: 200명 (법상개량용 각 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누십니다